

## 스티븐 D. 매튜슨 박사, 구약 내러티브 설교, 제5강: 주식 과정 개요 [사도행전]: 배경 분석 및 결론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내러티브 설교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경 해석 과정 개요, 사도행전, 배경 분석 및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성경 해석 연구를 마무리하고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각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A는 행동 또는 줄거리, C는 등장인물, T는 대화를 나타내고, 마지막 단계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배경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특정 시간, 장소, 문화를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 전체를 구성하는 더 큰 이야기 흐름 속에서 그 이야기가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남북 전쟁의 전투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가져온 게티즈버그 전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부모님께서 게티즈버그에서 북쪽으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농장을 운영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 그곳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를 몇 번 더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가 실제로 벌어졌던 장소와 시기입니다.

알고 보니 남북군은 1863년 7월 1일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라는 작은 마을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 전투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투는 7월 3일 조지 피켓 소장의 운명적인 돌격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를 연구하는 학생들은 더욱 자세한 내용을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형적 특징, 즉 세메터리 리지, 라운드 탑, 리틀 라운드 탑, 데블스 덴, 세미너리 리지와 같은 장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그곳들이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와 시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남북 전쟁 전체 흐름 속에서 게티즈버그 전투가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이 전투는 1861년에 시작되어 1865년에 끝난 남북

전쟁의 대략 중반에 발생했습니다. 게티즈버그에서의 북군 승리와 그랜트 장군의 빅스버그 전투 승리는 사실상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말은, 그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게티즈버그 전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북군 장군 조지 미드는 리 장군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전쟁을 끝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리 장군을 추격하는 데 있어 그의 신중함 덕분에 리 장군의 병사들은 피로를 회복하고 버지니아로 탈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대신 몇 년 더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게티즈버그 전투를 이해하려면 전투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더 큰 맥락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연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즉 역사적,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문학적 배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책 전체의 흐름 속에서, 또는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배경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작가는 종종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만약 그 특정 이야기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몇 장 뒤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지리적 이동이 있나요? 네. 이 이야기는 어느 시기에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언제 일어난 일이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로버트 치솜은 훌륭한 구약 학자였는데, 그는 물리적 배경에 대한 세부 묘사가 단순히 이야기에 사실감을 더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세부 묘사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이야기의 주제에 기여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장 9절을 보면, 왕의 오만한 신하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언덕 위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데, 엘리야는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신하와 그의 부하들에게 불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사실 그가 왕과 그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권위를 갖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룯기에서는 배경이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하나님을 등지고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본질적으로 언약 공동체를 버리고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더욱이 1절 1장에 나오는 "사사 시대"라는 구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도덕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엘리멜렉이 벗어나려 했던 육체적인 문제가 기근이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문화적 세부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열왕기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밋세바의 죄 이야기는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관례인 봄철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이것이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야기의 이해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문학적 배경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큰 맥락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과 두 창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각각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밤중에 죽었고, 두 창녀가 살아 있는 아기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결책이 무엇이였는지 기억하세요. 그는 "아기를 여기로 데려와서 반으로 잘라 너희 각자에게 반씩 주겠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물론, 그게 그의 진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진짜 모습, 그녀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니, 이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줘. 난 이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저기 저 여자가 바로 어머니야."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즉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바랐던 것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과 아비가일, 나발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광야와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는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이는 사무엘상 26장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어떻게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며 "정말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복수하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이 두 이야기의 중간에 나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은 유혹에 빠집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그를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배치가 그 이야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이야기지만요.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윗이 왕에게 복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윗이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문학적 배경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것은 상당히 강력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창세기 38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그것 또한 문학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그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일부 해석가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창세기 38장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 다소 황당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통역사는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무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영국인 통역사는 그것이 불링핀 아홉 개 사이에 있는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불링핀을 떠올리고 그 개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밖에 볼링핀을 세워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웃들이 놀러 와서 잔디밭 게임을 하려고 플라스틱 볼링핀을 차도에 놓아 놓았을 때, 당신의 개가 그 핀들을 밟고 지나가면 핀들이 모두 쓰러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38장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이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여기 있을까요? 이 장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팔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유다가 요셉과 대조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대조되는 인물, 즉 포일(foil)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요셉은 이집트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제가 이런 큰 악을 행하고 주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거짓으로 고발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럼 유다와 비교해 봅시다. 유다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따로 제시된 것은 바로 그 둘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나오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흔히 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라고 불리지만, 성경 저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축복이 전해질 계보, 메시아가 오실 계보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8장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을 축복하실 민족을 세우시는 더 큰 이야기도 그 맥락에 들어맞습니다. 저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구절들의 배치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정말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사기가 여러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정확히 순환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3장 7절부터 16장 끝까지 이어지는 하향 나선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하향 나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댄 블록이 말했듯이,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정경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이교도 이웃들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입니다. 책 서문에서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전쟁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전쟁은 모두 그 문제와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문제와 우상 숭배 문제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즉, 전쟁 문제와 우상 숭배 문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처럼 내리막길을 걷는 긴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부터 21장에 이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부분은 제가 창세기라고 하지 않고 사사기에서 말한 도입부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보세요. 그러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전쟁, 제물,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7장과 18장에는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 책의 구성 방식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런데, 심지어 몰락 과정을 다룬 부분에서도 구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사사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구원자이자 해방자에 더 가깝죠.

그 모든 경우를 보면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노력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의 특정 책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때로는 책 자체가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액션, 캐릭터, 대화, 그리고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주요 범주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큰 틀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목록을 적거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사건(ACTS), 등장인물, 대화, 배경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사건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범주들은 여러분이 읽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글을 다르게 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바울의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 또는 신약성경의 다른 서신들을 공부할 때와 비교해 보세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좀 다르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단순히 단어 연구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단어는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특정 핵심 단어나 반복되는 단어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자료를 분석했으며, 사건, 등장인물, 대화,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윤리적 핵심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도록 도전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이디어가 하나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중심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자 설교자 양성가 중 한 명이었던 고(故) 해든 로빈슨은 그의 저서 『성경 설교』에서 어떤 구절이든 핵심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 방법이 내러티브 설교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로빈슨 박사의 저서 『성경적 설교』를 읽고 그 핵심 내용을 접했을 때, "이런 쓸데없는 일에

왜 굳이 시간을 써야 하지? 난 그냥 성경만 설교하고 싶은데 말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제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많은 주석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내용을 요약해야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던 거죠. 해든 로빈슨은 모든 생각에는 주어와 보어가 있으며, 시작점은 주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문법적인 주어나 단순히 주제가 아니라, 작가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어를 '누구', '무엇', '왜', '언제', '어디', '어떻게'와 같은 질문 형태로 표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법한 기자들의 질문과 비슷하죠. 러드야드 키플링도 그런 질문들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읽거나 공부할 때, 주제가 무엇인지, 작가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주제를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와 같은 질문 형태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제를 알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어'라고 부릅니다. '보어'는 '완성된'이라는 뜻의 'complement'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진짜 칭찬은 누군가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였어요”라든가,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정말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취향이 좋으시네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음, 당신은 그들에게 칭찬을 했네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완성하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와 보어, 주어는 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보어는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자료, 즉 행동, 등장인물, 대화, 배경에 대한 모든 통찰력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작가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핵심 아이디어가 그 구절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서를 읽을 때든 저자가 의도한 바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요약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제는 단순히 화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누군가 "그 메시지는 무엇에 관한 건가요?"라고 물으면, "죄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해든 로빈슨이 전하는 캘빈 쿨리지 대통령의 일화처럼,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쿨리지 대통령의 아내가 "설교 내용이 뭐였어?"라고 묻자, 그는 "죄에 관한 것이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그럼 목사님은 죄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라고 다시 묻자, 그는 "목사님은 죄에 반대하셨어."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그가 설교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제가 죄군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설교자가 "우리는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성경 해석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설명하는 해석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백성, 또는 누구든 간에 그 인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설교자들을 가르치는 데 매우 저명했던 폴 보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해든 로빈슨과 함께 가르쳤고, 이야기 해석에 대한 훌륭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폴 보든에 따르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연구하면서 이 두 장의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보든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고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것에 관한 거잖아요. 간음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면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는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아가 이 이야기의 영웅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으로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없애버리고 왕위를 그냥 내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이후 몇 년 동안 심각한 결과가 따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설교들은 대부분 간음을 피하는 방법이나 간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는 그런 의도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시대를 초월하는 언어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나 강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실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왕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저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적용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 해석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지만, 이제 그 언어를 현재에 적용하는 언어, 즉 시대를 초월하는 언어로 바꿔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폴 보든의 핵심 사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와 예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 사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정한 축복을 주시는데, 십계명에서조차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를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 죄의 핵심이었죠, 안 그런가요? 신약성경에서도 그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합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고집하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큰 아이디어 접근 방식이 스토리텔링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드물긴 하지만, 가끔씩 “네, 하지만 주제는 좋은데, 칭찬이 한두 개쯤 더 나오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칭찬이 두세 가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런 식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해든 로빈슨은 그런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성경 저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에서 기도에 대한 다섯 가지 통찰이나 소진에 대한 여섯 가지 통찰과 같은 원칙 목록을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서술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책의 주제를 살펴볼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 주제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구절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해든 로빈슨의 주장입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대부분의 성경 구절,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야기에든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대부분의 구절이 하나님의 성품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는 화자가 하나님을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게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단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보내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것저것 주시지만, 밋세바는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폴 보든이 이 선물 주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 즉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이 이 특정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 어떤 면이 드러나는지 파악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핵심적인 주제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물론, 때로는 그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좀 더 표면적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심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정말로요.

좋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해든 로빈슨이 말한 '타락 요소'입니다. 타락 요소란 우리가 직면하는 죄, 즉 반역의 유혹을 말하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지르도록 유혹받는 죄입니다. 어떤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성품의 어떤 측면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브라이언 채플이 그의 저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서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타락이라는 요소는 다윗의 성향, 그리고 우리, 저의 성향,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경멸하려는 성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거대한 선물들을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너무나 원해서, 필요하다면 불순종해서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다루는 타락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장작을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막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몬태나에 살았을 때, 저희가 살던 집 몇 채에 장작 난로가 있었는데, 추운 아침에 나가서 장작을 쪼개곤 했어요. 난로에 넣기 좋게 작게 쪼개려고요. 어떤 때는 장작을 한 번에 쪼개면 순식간에 갈라지기도 했어요. '와, 나 힘 진짜 세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용이에 걸려서 쪼개는 데 한참 걸리기도 했어요. 큰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이야기 속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모습에 어긋나는 타락의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서들이 여러분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책 『구약 내러티브 설교의 기술』에 더 많은 예시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설교와 가르침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 안내서』라는 책도 있는데, 저는 잠언과 열왕기상하 부분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은 각 구절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스스로 연구해 보시고, 그 후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저는 성경의 다른 책들을 연구할 때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가끔은 '저자가 완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열왕기상 관련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립스 브룩스 노련한 설교자가 예일대 설교 강연에서 말했듯이, 설교는 인격을 통해 진실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항상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큰 아이디어를 설교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분명히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이 설교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기술이며, 설교 준비 과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숙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성경 해석에서 핵심 주제, 즉 해석적 주제를 파악하는 단계를 넘어 설교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대한 이해와 큰 주제를 얻었지만, 이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산을 내려오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의 구약 내러티브 설교 강의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해석 과정 개요[ACTS], 배경 분석, 그리고 결론입니다.